

벌레가 된 ‘그 남자들’?

교육의창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그레고르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카프카의 ‘변신’은 이렇게 시작된다.

처음에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갑작스러운 변신을 보며 당황스러워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혹감의 정체는 또렷해진다. 그것은 바로 그레고르가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보다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 있다. 생각해 보면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직후에도 ‘벌레’는 아니었다.

여동생 그레테는 자신의 오빠를 위해 헌신적으로 음식을 챙겨주고 방도 청소해 주었다. 그랬던 그레테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겪은 뒤에 마침내 “우리 가족은 저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울부짖었고, 결국 그레고르는 완전한 벌레가 되어버린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극우 유튜브)를 추종한다.”

지난 1월, ‘내 아들을 ‘극우 유튜브’ 세계에서 구출해 왔다’를 쓴 권정민 교수의 글 중 일부이다.

학교 교실에서 극우화는 일상이다. 남학생들의 극우화 현상을 기획한 기사에 따르면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이 XX’, ‘너 페미지?’, ‘너 빨갱이냐?’ 같은 표현을, 악의가 담긴 욕으로 쓰기보다는 친구끼리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실 안의 폭력은 광장의 폭력으로 이

어진다. 자기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시시덕거리던 ‘일베’가 2014년 9월 6일, 광화문 세월호 단식 투쟁 농성장 앞에서 온갖 음식들을 쌓아놓고 ‘폭식투쟁’을 하면서부터 세상 밖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젊은 남성들은 12·3 불법 계엄 이후 광장 곳곳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외치다가 급기야 ‘서부지법’에 쳐들어가서 온갖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21대 대선 투표에 참여한 20대 남성들 중 약 70%가 내란을 옹호하며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 정치인과 약자를 조롱하고 대국민 성폭력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졌다.

얼핏 보면, 이 사회에 ‘벌레’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옹호하고 다양성과 통합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해충으로 보인다. 이들이 앞으로 만들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끔찍하다. 10년 전 일베가 10년 후에는 법원을 공격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일들을 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12·3 내란의 정치적 종식을 이룬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것이 전부일까? 그들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문제의 원인일까? 오히려 여러 문제로 인한 어떤 징후(symptom)가 아닐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얹히고 얹히며 쌓이고 쌓이다가 사방으로 터져나온 어떤 결과가 아닐까. 그레고르가 느닷없이 벌레로 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견디고 버티다가 자기를 잃어버린 결과로 벌레가 되었듯이, 젊은 남성들을 둘러싼 여러 내·외적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극우적 사고를 내면화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가족들에게 건네는 말이 한낱 해충의 기괴한 소음이었듯이. 이땅의 젊은 남성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는 혐오와 차별로 들리는 것이 아닐까.

‘뽕코만 보면서 이준석 선택? 이걸 읽어보세요’ (2025, 6, 5,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학생들은 발달상 여학생들에게 뒤쳐지기 마련이다. 장난을 치다가 여교사로부터 지적과 질책을 받기 일쑤다. 연짙은 기분을 환기하기 위해 학교를 벗어나면 스마트폰 게임에 접속한다. 캐릭터를 키우고 경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서열 구조에 몰입한다. 게임 속 세계야말로 공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공정한 곳이라면 능력주의도 동의가 된다. 게다가 게임 속 익명성은 그동안 억눌렀던 조동과 혐오를 가감없이 내뿔을 수 있는 장구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갖 혐오 표현이 한낱 장난과 놀이로 소비된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현실로 돌아와보니, 그동안 억눌렀던 생각과 감정을 가감없이 대변해주는 유튜브들이나 정치인들이 보인다. 그들의 자극적인 갈등의 언어는, 자신들이 듣기에 공정하다. 내로남불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는다.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알아준다.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 ‘변신’의 진짜 비극은 그레고르의 변신이 아니라 그레테의 변신이다.

‘오빠’를 돌보던 그레테가 그토록 차갑게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레고르는 그렇게 벌레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응원봉이 빛나던 지난 광장 이후, 우리에게 는 오빠를 돌보던 ‘처음의 그레테’가 필요하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극우화된 젊은 남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 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권정민 교수의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자. ‘극우 대해부’와 같은 주간지의 기획 연재 기사나, 극우 현상을 분석한 ‘광장 이후’와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함께 모여 읽고 생각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가까이 말 건네는 동료가 되자. 이땅에서 모두 함께 인간으로, 시민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처음의 그레테’가 되자.

社 說

타결 후가 더 중요한 광주 시내버스 파업

노·사간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지난 21일 역대 최장인 12일 만에 타결됐다. 연간 적자가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업 만으로는 시내버스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노·사가 공감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장기적인 혁신을 선택한 노조와 준공영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한 광주시의 중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는 기본급 3% 인상과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장 대중교통 혁신회의에 노·사가 참여해 임금과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의 구조 개선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포함됐다. 애초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간 적자가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노조

원과 비노조원의 갈등도 노출됐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다. 협상 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언급한 ‘비운 뒤 땅이 굳는다’는 것도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다. 당장 지금의 준공영제는 적자 보전을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만 투입될 뿐 효율성 검증이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의 정책이 비슷한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 등과 달리 ‘사업자를 위한 준공영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운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 노·사가 공동으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느슨했다.

광주시는 노조와 약속한 혁신회의를 통해 미흡했던 준공영제를 바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투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시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대·자·보’ 도시에 걸맞도록 광역교통 환승체계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 봉합이 아니고 장기적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광주시의 설명에 이번 협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제석산 구름다리, 더 이상 비극은 안 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2017년 이후로는 7번째다. 이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도로 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잇기 위해 설치된 보행 전용 교량이 다.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연결하며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자리 잡았지만, 37m 높이 위에 설치된 구조물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됐고, 잇따른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남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올리고 회전식 원통형 난간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완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다. 올해만 해도 2월과 4월에 40대와 30대 남성이 잇따라 추락해 숨졌으며,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남구는 와이어 추락방지망 설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놔야. 1억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구름다리 상·하단에 1322㎡, 548㎡ 규모의 와이어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등에서 활용되는 구조물로, 100kg의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사업 실시설계와 공사 계약 의뢰까지 마친 상황이다.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공에 나서야 한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역 주민에게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생활 속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는 이 공간의 존재 의미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안전한 산책길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더욱이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려온 만큼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냉철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구조적 보완은 물론이고 경고 표지, 방법·CCTV 강화, 야간 통제 제한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단발적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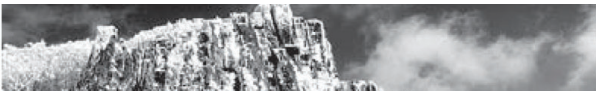
지난 21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들은 함께 욕상으로 올라간 뒤 화단에서 발견됐으며, 유서도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현듯 소노 시온 감독의 ‘Suicide Circle’ (자살클럽)의 첫 장면이 떠오른다.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역, 재잘재잘 떠들며 지하철을 기다리는 평범한 모습의 여고생들. 54명의 여고생들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에 서로 손깍지를 끼고 “하나, 둘, 셋”하며 일제히 철로로 몸을 던

진다. 영화 오프닝 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이 영화는 2001년 일본을 배경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 개인의 정체성 붕괴와 허무하고 공허한 인간의 내면을 담아냈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버블경제 붕괴 후 그득했던 세기말의 잿빛 색깔은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에 드리우고 있는 듯하다.

국내 자살률은 지난 2023년 기준(잠정) 인구 10만명당 28.3명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10.7명)의 2배 이상이자 순위로는 압도적 1위다. 특히 연령별로는 최근 12년 새 10대에서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올랐다. ‘미래세대’라



부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그동안 앞선 정부들은 자살 문제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거나, 임기 중 자살률을 50%,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왔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지원하고, 응급지원센터를 강화하며 사회 캠페인도 벌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살률 증가 및 지속적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그동안의 노력이 역부족이거나,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왜 이리 높지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1년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현안을 제쳐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드디어 한국의 자살률도 전환점을 맞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조직이 성공한다는 말도 있다. 하물며 국가라고 다를까. 건강한 국민들이 한국의 국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 줄 국회의 협력, 지역 단위의 자살 예방 조직 및 예산 투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곽지혜 취재2부 기자